

산불 사각지대 찾아라... 담수지 지도 제작

담수지 24곳 확보... 갯수보다 헬기 이동거리 중요 화산암반 지질 물 잘 안고여 담수지 확보 '걸림돌'

산림청이 제주지역 산불 진화에 필요한 담수지의 각각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만든다. 산림청은 이 지도를 통해 담수지와 거리가 먼 이른바 '산불 사각지대'를 찾아내 이동식 저수조 등을 설치하거나 추가 담수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제주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3일 산림과학원 난대야생대연구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등과 함께 산불 진화용 담수지 현황과 이동식 저수조 운영을 주제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담수지는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

화용 헬기가 물을 담을 수 있게 물이 피어 있는 곳을 말한다. 산림청이 확보한 도내 담수지는 제주도 9곳, 서귀포시 15곳 등 24곳이다. 이 중에는 산지전처럼 자연적으로 조성됐거나, 골프장처럼 조경수 관리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모아둔 곳이 포함돼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24곳 담수지와 제주 각지역 분포한 오름, 한라산 등간의 거리를 측량한 '담수지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담수지 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산불이 났을 때 담수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진화의 효율

성을 높이려는 목적과 이른바 '산불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목적 등 2가지가 있다.

제주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 "담수지를 몇 곳 확보하고 있는지 보다는 산불이 난 곳과 담수지 간의 거리가 산불 진압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담수지와 산불이 발생한 곳 사이의 거리가 멀면 그만큼 화재 진압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헬기로 산불을 진압할 때 담수지까지의 거리가 5km씩 증가할 때마다 진화 효율은 18%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산불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인근의 담수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담수지를 발굴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렵다.

제주도는 화산암반으로 이뤄져 물이 잘 고이지 않는 등 물을 저장할 곳이 마땅치 않고, 도내에 있는 하천 대다수가 물이 마른 건천이기 때문이다. 또 담수지가 조성된 사유지를 활용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헬기가 담수지에 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등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 담수지 확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측은 토론했다.

제주산림항공관리소는 이런 문제로 추가 담수지 확보가 여의지 않다면 산불 사각지대에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동식 저수조는 산불 현장 부근에 설치해 헬기에 물을 공급하는 탱크를 말한다.

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 지원

제주시, 최대 12회까지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 등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탐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가능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탐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가능하며, 연간 1인당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고대르기자

"드림타워 전용 오수관 매설 반대"

노형동 주민 15일 기자회견 드림타워측 "역류 우려 없어"

제주시 원노형3·5·7길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형동에 건설 중인 드림타워 전용 오수관을 원노형 3길, 5길, 7길 마을에 매설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건설 중인 드림타워 오수처리 오수관 건설계획은 사전 주민 설명회도 없이 허가를 받고 시행하다가 지난해 11월 한 주민이 인지하고 매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는 노형동 오수처리를 위해 서 누가 봐도 안전한 노형 오거리로 용량에 합당한 오수관을 매립해 도

두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해야 순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드림타워측은 "드림타워의 하루 하수 발생량 4968㎥ 중 2248㎥는 공공 하수관을 통해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000㎥는 재활용, 1720㎥는 고도처리공정을 거쳐 방류관을 통해 친수용수로 자연 방류한다"며 "친수 용수를 보내게 될 방류관은 일반 주택 건물의 하수관과 연결되지 않아 역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드림타워 측은 지금까지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불만과 오해를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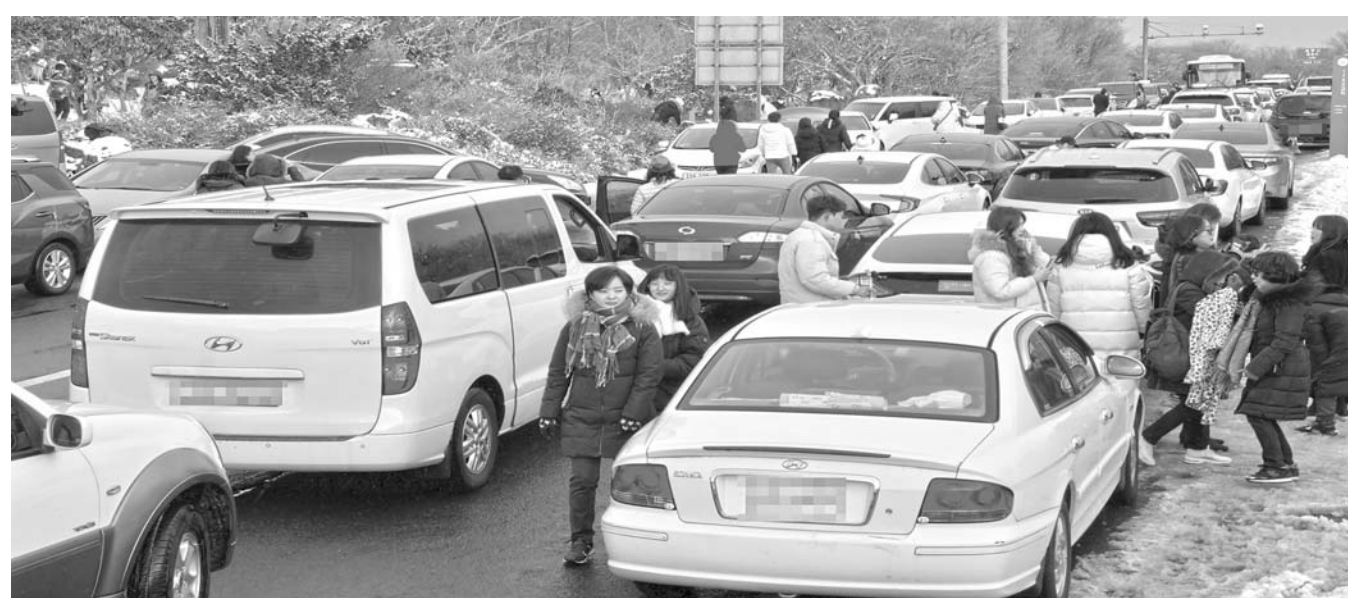
등반 50대 심정지 사망

한라산을 오르던 50대 탐방객이 심정지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직장동료들과 함께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등반하던 김모(59)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20여분만에 웨스지 북구용 모노레일을 타고 하산하던 김씨를 관음사 관리사무소에서 2.5km 떨어진 지점에서 인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김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주차장으로 변한 1100도로 한라산 중산간에 많은 눈이 내려 장관을 이룬 15일 1100고지에 많은 도민·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큰 혼잡을 이루고 있다.

공사장 거꾸집 붕괴 사망

제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꾸집이 무너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꾸집 외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이모(광주·48)씨가 무너지는 거꾸집 외벽에 깔리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동료 작업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출·퇴근시간 갓길 암체운전 여전

제주시 애조로서 출·퇴근시간대 빈번히 목격 지난해만 56건 적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제주지역 애조로 구간에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이용하는 암체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애조로에는 출퇴근 시간을 맞아 통행하는 차량이 가득 차 있었다. 이들 중 일부 차량은 길 가장자리 구역을 침범해 운행하다 2차로로 끼어드는 등 암체 운전을 일삼고 있었다. 노형교

차로 인근에는 노형 방면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우회전 진입 차로가 시작되기 전에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진입해 우회전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날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제주시 애조로 길어깨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7년 28건, 2018년 12건 그리고 지난해 56건이다.

애조로 구간에 조성된 길 가장자리 구간은 흔히 '갓길' 또는 '길어깨'라고도 불린다. 길어깨 구간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해 차도에 인접해 설치하는 것으로 비상 통행·정차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길어깨 구간을 통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없지만, 영상기록 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현석기자

부실 도로공사 가담 공무원 등 벌금형

제주시법, 각각 벌금 선고

제주시 아라-회천 구간 도로 포장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한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까지 위조하며 부실 공사를 방치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시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59)씨와 현직 공무원 양모(49)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모(52)씨와 책임감리원 나모(58)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진행된 애조로 아라-회천구

간 개설공사의 현장소장을 맡으면서 보조기중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도로 포장 보조기중에 규격에 맞지 않은 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무원 김씨와 양씨는 책임감리원 나씨와 짜고 국고보조금 8억원의 불용처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2015년 8월 해당 공사의 실제 기성고보다 높게 검사조서 등을 꾸며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성고는 공사 진척률에 비해 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모 이들은 그해 6월 24일까지 해당 공사가 애조 설계대로 준공되지 않고 공무원이 준공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해안요양원

입소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정원 : 84명 24시간 요양시설

월산마을 한국주방 노형오거리방향

해안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산남길 159-15 (해안동)
T. 064-712-7769 F. 064-711-4870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서귀포시정 소식

2020년 서귀포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 신청기간 : 2020. 1. 13(월) ~ 2. 10(월)
- 신청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 농 인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자
 - 재촌비농업인 : 서귀포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으며,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공통사항 : 만65세 이하(1954.1.1.이후 출생자) 세대주,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용자지원 (연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농업창업 (영농기반 등)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증명자료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760-3951~3953

서귀포시평생학습관 2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0. 1. 15(수) ~ 1. 29(수)
- 모집대상 : 서귀포시민(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 프로그램 : 미술심리상담사 초급,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생활 일본어·중국어·영어 입문반, 관광여행 일본어·중국어·영어 초급, 컴퓨터기초, 인터넷 배우기

- 접수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https://edu.seogwip.o.go.kr/life/index.htm)
- 수강료 : 계좌이체(교육 수강신청과 동시 입금 원칙)
 - *계좌번호 : 농협 301-0126-5878-11(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접수문의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 760-3871~3874, 2262, 2263
- '성운과 성단' 관측 프로그램 운영 알림
- 관측기간 : 2020. 1. 7(화) ~ 1. 26(일) / 19:00~22:00
 - * 매주 월요일 휴관
- 관측장소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관측실
- 참여대상 : 별자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 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 관측내용 : 플레이아데스성단, 오리온대성운, 겨울철 별자리 등
 - * 날씨에 따라 관측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확인 필요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천문과학문화관 ☎ 739-9701, 9702

2020년 감귤 선과장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1. 13 ~ 1. 29
- 신청대상 :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 지원내용 : 감귤 유통 시설 개보수 등 지원 (조직원 1억원 한도, 보조금기준)
- 지원기준 : 인·허가 관련 비용(취등록세 포함)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액 및 지원량은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포함) 작성 제출
- 신청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유통지원팀), 농협(소속작목반)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760-2723